편자 미상, 『완산고을의 맥박(脈搏)』,한국예총전주시지부, 1994.
편자 미상, 『일재 이항 선생의 학문·사상과 호국 애족정신』, 일재 이항 선생 학술대회 자료집, 1999.
황윤석, 『이재유고(頤齋遺稿)』 임진왜란 편, 1829.
『호남지(湖南誌)』, 1925.

「정읍학」창간호, 정읍학연구회, 2014.5.

미륵불교의 '신인동맹 사건'

안후상*

〈목 차〉

1. 들어가며
2. 강증산 계통의 미륵불교
3. '일망무지론'과 '신인동맹'
4. 나오며 : '신인동맹' 사건의 의의와 성격

1. 들어가며

일제 강점기인 1940년에 일본 경찰(이하 일경이라 함)은 정읍 태인을 중심으로 일제의 멸망을 예언하고 기원하는 비밀결사체를 포착, 수사하였다. 1942년 4월에 전주검사국은 관련자 총 28명을 기소하였고, 1943년 10월에 전주지방법원은 정인균(鄭寅均; 1897~1955)를 비롯한 핵심 인물 13명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름 하여 '신인동맹사건(神人同盟事件)'이다.[1]

신인동맹은 미륵불교(彌勒佛敎)라는 종교와 관련이 있다. 신인동맹과 관

* 현재 고창북고 교사, 한국신종교학회 이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연구원

1) 정읍 태인에 본부를 둔 미륵불교 교단의 여러 자료에는 '신인동맹 사건'을 '미륵불교의 왜화조난(倭禍遭難)'이라 기록하고 있다.

련한 미륵불교는 신종교 단체이기는 하지만 미륵불교라는 교명이 그러하듯이 그 실체 파악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륵불교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반대하고 지상 선경사회(仙境社會)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증산 계통의 신종교임을 알 수 있다.[2] 어쨌든 미륵불교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려고 비밀리에 멸왜기도(滅倭祈禱)한 점을 주시하면서, 본고는 신인동맹의 활동을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보고자 한다.[3]

일제의 멸망을 예언하고 기도하다가 일경에 체포된 신인동맹 사건을 그간 우리 사회는 외면하였다. 혹자는 신인동맹 사건을 터무니없는 낭설쯤으로 여겼다. 수감 생활한 이들의 재판 관련 기록이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사이비 종교의 활동쯤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4] 1990년대 들어 국가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신인동맹 사건으로 수감 생활했던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추서한 것이다. 사건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극적인 이유는 좀 더 궁구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가 늦게나마 신인동맹 사건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한 것이다.

본고는 신인동맹 사건을 본격 연구하기 위한 시론(試論)에 가까운 글이다. 신인동맹 사건에 미륵불교가 직접 관련하였음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교단에서 생산된 자료를 가지고서 해당 사건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5]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국가 유공자 기록'으로 앞의 교단측 자료를 검증하면서 사건을 재구성해볼 생각이다.[6] 본고는 또한 미륵불교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2) 안후상은 일제 강점기의 강증산 계통의 종교 활동, 특히 보천교 운동의 목적을 '후천개벽 지상 선경사회 건설'이라고 강조한다(안후상,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 26, 한국신종교학회, 2012; 「19세기 노령 이북의 좌도와 동학·보천교」, 『19세기 사상의 거처』, 도서출판 기역, 2013).

3) '멸왜기도(滅倭祈禱)'는 1940년 전후의 시기에 보천교 잔여 세력을 검거, 수사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에 자주 나타나는 용어다. 따라서 '멸왜기도'를 반일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본고의 입장이다.

4) 그간에 '미륵불교의 신인동맹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는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천교 운동이 그러하듯이 관련 연구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종교학을 전공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미륵불교가 소개되면서 단말마적으로 신인동맹 사건이 언급될 뿐이다.

5) 설일심(雪一心) 편, 『애국의 거불(巨佛)』, 미륵불교총본부, 1975; 홍범초의 『범증산교사(汎甑山敎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이정립, 『증산교사(甑山敎史)』, 증상교본부, 1977. 앞의 책들은 미륵불교의 교단이나 강증산 계통의 교단 지도자들(홍범초와 이정립)이 정인표 등 당시 수형 생활한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6)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게 신인동맹 사건을 규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강증산 계통의 미륵불교를 먼저 고찰하고, 이어 신인동맹 사건의 성격이나 주요 인물의 성향 등을 언급하겠다.

2. 강증산 계통의 미륵불교

강증산을 미륵불로 인식하는 강증산 계통의 대표적 교단은 김형렬의 미륵불교다. 김형렬은 강증산의 제자로, 강증산 사후에 보천교의 차월곡과는 별도로 '미륵불교'를 창시하였다. 본란에서는 김형렬의 미륵불교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정인표의 종교운동을 고찰할 것이다. 정인표는 김형렬의 미륵불교의 재기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정인표의 종교운동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1945년 8·15광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광복 이전의 정인표는 후천개벽 지상 선경사회 건설운동의 일환으로서 반일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강증산 계통의 미륵불교는 앞의 김형렬의 미륵불교 외에도 김홍현(金洪玄)의 '미륵종(彌勒宗)'(뒤에 대한불교미륵종), 서백일(徐白一)의 '용화교(龍華敎)'(뒤에 대한불교 용화종), 서승영(徐承永)의 '용화미륵불연구회', 서원섭(徐元燮)의 '미륵불증산대도회', 최선애(崔善愛)의 '대한불교 법상종' 등이 있다.[7]

1) 김형렬의 미륵불교

미륵불교라는 용어는 대체로 미륵불을 신앙하고 미륵신앙이 그 교리의 바탕을 이룬 불교의 교파(敎派)를 가리킨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미륵불교는

7) 강증산 계통의 미륵불교에 관해서는 이강오의 『한국신흥종교총람』, 도서출판 대흥기획, 1992, 1496쪽을 많이 참고하였다.

강증산(姜甑山; 1871~1909)을 신앙하는 이들에 의해서 남달리 많이 쓰여진 용어이다. 예컨대, 강증산 스스로가 미륵불이라 하였고 강증산 계통 교파 가운데 '미륵불교'라는 교단 실재하였다는 점에서, 미륵불교는 강증산 계통의 종교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순전경(大巡典經)』[8]에 의하면, 강증산 자신은 전북 모악산 금산사의 미륵불로 30년을 머물다가 이 세상에 나왔으며, 자신의 사후에 자신을 보고 싶으면 금산사 미륵불을 찾으라고 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강증산을 따르던 제자들은 강증산을 미륵불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증산의 수제자로 알려진 김형렬(金亨烈; 1862~1932)은 보천교(普天敎)의 차월곡(車月谷; 1880~1936)과 헤어져 1915년에 김제 금산면 금산리의 모악산 금강대(金剛臺)에서 '미륵불교'라는 교단을 창시하였다.[9] 참고로 김형렬을 따르던 세력을 당시 사람들은 '태을교(太乙敎)'라 불렀으나 대체로 보천교를 태을교 또는 선도교(仙道敎)라고 불렀다.[10] 강증산 계통의 교단 가운데 보천교의 세력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초창기 김형렬의 미륵불교는 교도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가 컸다. 1919년에 김형렬과 따르던 수십 명의 교인들이 '전주 위봉사 주지 곽법경(郭法鏡)과 함께 수백 명의 비밀 결사체를 조직해서 조선의 독립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11] 6개월간의 문초에도 불구하고 김형렬 이하 수십 명의 교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석방되었으나, 교단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12] 1921년에 서울에서 불교진흥회(佛敎振興會)를 조직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미륵불교로 개명하고 교단 본부를 전북 모악산 금산사에 둔 김형렬은 수 차에 걸쳐서 각종 예언을 하였다. 하지만 그 예언은 거의 빗나갔고, 이 때문에 교세는 더욱 약화되었다. 1932년 김형렬이 사망하면서 미륵불교의 교단은 지리멸렬해졌다.[13]

김형렬의 미륵불교는 강증산의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는 유훈을 따른 교파였지만, 강증산 계통의 주문인 태을주(太乙呪)를 쓰지 않고 동학 주문인 시천주(侍天呪)를 쓰게 한 점은 특이하다.[14] 김형렬 사후의 미륵불교는 유제봉(柳濟奉)의 '용화계(龍華契)'와 증산교의 '김자현파(金自賢派)' 등으로 나뉘어졌다. 앞의 용화계는 최선애(崔善愛)의 '미륵계(彌勒契)'로 이어지다가 1970년 '대한불법상종(大韓佛敎法相宗)'으로 당국에 등록되기도 하였다. 앞의 증산교 김자현파에서 또 다시 '김사모파(金師母派)'가 분파되기도 하였다.[15]

2) 광복 이전의 정인표의 종교운동

김형렬 사후 2년 뒤인 1934년에 정인표가 다시 미륵불교를 들고 나왔다. 1897년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성동에서 태어난 정인표는 일찍이 도통입명(道通立名)에 뜻을 두었다. 그러던 그는 완주군 용진면의 산제당(미륵당이라고도 함)에서 우주문(五呪文)으로 치성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선관(仙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상제(上帝)로부터 도통을 이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1934년 1월, 그의 나이 37세 되던 해였다. 이후로 그를 따르던 이들은 정인표를 '아미타불(阿彌陀佛)'로 여기며 받들었다. 1934년 1월 15일경에 모악산에서

8) 보천교 수위 간부를 지낸 이상호가 편찬한 『甑山天師公事記』(1926)를 모본으로 하고 있다.
9) 김형렬은 김제 금산면 청도리에서 태어나 일찍이 東學에 가담했고, 1901년 강증산이 天地公事를 시작할 때부터 8년 동안 강증산 곁을 지켰다.
10) '普天敎'라는 이름 이전의 보천교는 太乙敎, 仙道敎, 훔치교, 천자교 등으로 불렸다. '보천교'는 1922년 교단에서 표명한 이름이다. 교명이 표명되기 이전에 일제는 車月谷(車京石)의 일파를 仙道敎로, 姜甑山의 수제자로 통하는 金亨烈 일파를 太乙敎로 파악하였다. 차월곡과 김형렬은 1914년까지는 강증산의 유지를 받든 종교적 형제지간이었다. 따라서 일반에서는 양자를 혼동하였고, 강증산 계통의 교단을 太乙敎라 칭했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는 대체로 차월곡 일파를 '太乙敎'라 표기하였다. 그 이유는 김형렬 일파가 당시 차월곡 일파에 비해 그 세가 미약했고, 당시 언론이 김형렬과 차월곡을 한 통속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11) 「太乙敎徒檢擧に關する件」(大正八年十二月二十六日 高警第三六六一〇號)(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第Ⅰ卷分冊 民族主義運動篇』).
12) 이정립, 앞의 책, 1977, 67~68쪽.
13) 이정립, 앞의 책, 1977, 133쪽; 홍범초, 『汎甑山敎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186~187쪽.
14)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도서출판 대흥기획, 1992, 973쪽.
15) 위의 책, 973쪽.

'구국제민(救國齊民)을 위한 천지신명(天地神明) 해원공사(解冤公事)' — '신도공사(神道公事)'라고도 한다 — 를 행하였고, '지상천국 극락세계 낙토 건설을 위한 천명도수(天命度數)'를 보기 시작하였다.[16]

앞의 신도공사에서 정인표는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해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관우(關羽)·안량(顔良)·문추(文醜)·진묵(震默)·최제우·이순신·김덕령·임경업·전명숙 등의 신명을 불러들였다. 1934년 2월에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뒷산에서 신도공사를 재개하여 '선불유(仙佛儒) 삼가(三家)를 일가(一家) 애운(大運)으로 합기'하는 공사를 벌였다.[17] 이때 정인표는 미륵불의 성령이 자신에게 의부(依附)되었으므로 자신은 인불(人佛)이라, 자처하면서 그 길로 하산하여 지리멸렬한 김형렬의 미륵불교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였다. 더불어 자신에게 의부된 미륵불은 강증산이 귀의한 금산사 미륵불의 성령이라면서 그는 강증산처럼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때때로 행하기도 하였다.[18]

정인표는 1938년 4월에 따르던 50명을 데리고 김형렬의 영신(靈神)을 금산사 미륵불 앞에 봉안하는 인불(人佛) 봉안식(奉安式)을 거행하였다. 1938년 7월에는 정읍 태인 이진호(李鎭浩)의 집에서 신도공사(神道公事)를 행하였다. 이때 일본의 명치신명(明治神明)을 불러서 크게 꾸짖으면서 조선에 '生' 자를 일본에 '死' 자를, 그리고 소화천황(昭和天皇)에게는 '落'자를 붙였다. 1940년 5월에도 이진호의 집에서 따르던 50명과 함께 '일망무지(日亡無地)'를 예언하였다. '일망무지'란 일본이 재앙을 당해 패망하고 우리나라 땅은 밝은 새 세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던 그 해 12월 15일에 밀정 김병환(金炳煥)의 밀고로 정인표를 비롯하여 이진호·정공일 등 43명이 일경에게 체포되었다.[19]

16) 雪一心 編, 앞의 책, 1975, 1~3쪽; 홍범초, 앞의 책, 1988, 590~591쪽; 이강오, 앞의 책, 1992, 203쪽, 981쪽; 양은용, 「미륵불교의 성립과 『敎理正典』」, 『한국종교』 31,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7, 153~156쪽. 앞의 책들에 의하면, 정인표는 東萊鄭氏로 父 輝朝, 母 全州崔氏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인표는 이름이고 호가 秀山이다.

17) 양은용, 위의 책, 154~156쪽.

18) 이강오, 앞의 책, 1992, 203쪽, 979~980쪽. 天地公事란, 相剋이 지배하는 선천시대를 해소하고 相生이 지배하는 후선시대를 만드는 일 또는 행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 광복 이후의 정인표의 종교운동

정인표의 비밀스러운 집회, 즉 신도공사는 1940년 12월에 일경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정인표는 검거되어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일망무지라는 예언이 들어맞았다며 1945년 8월 18일에 출옥한 정인표를 향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출옥한 정인표는 정읍 태인에서 미륵불교의 교문을 열었다.[20]

정인표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천지신명을 불러내 신천지(新天地) 건설을 위한 신도공사를 벌였다. 1949년 1월에는 강서인 『교리정의서(敎理正義書)』를 내놓고 설법하는 등, 『삼강대전(三綱大典)』, 『교리정전(敎理正典)』, 『명리대전(命理大全)』, 『용화도량설법기(龍華道場說法記)』등을 내놓았다. 1950년 1월에는 정읍 태인면 태성리에 교당을 짓고 '미륵불영원회 본부(彌勒佛永園會本部)'라는 간판을 내걸었다.[21] 미륵불영원회가 곧 '미륵불교'인 것이다.

1950년 4월에는 태성리에다 초등교육기관인 인재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아동 150여 명을 가르쳤다. 1951년 5월에는 태인명륜고등공민학교를 인수 경영하였다. 1952년 12월에는 미륵불을 주불로 하고 석가와 공자를 모시는 신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본부를 정읍 태인면 태흥리로 옮겼다. 1953년 1월에는 태흥리 본부에 대성미륵대장전(大成彌勒大藏殿)·명부전·칠성전 등을 건립하는 등 교화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1954년 11월에는 문교부로부터 '미륵불영원회'라는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1955년 7월부터는 『인화도덕경』, 『성경현전』, 『미륵불대자보전』, 『미륵불태화대자경』, 『신화경』등의 교리서를 내놓았다.[22]

19) 雪一心 編, 앞의 책, 1975, 4~5쪽; 홍범초, 앞의 책, 1988, 618쪽.

20) 양은용, 앞의 책, 2007, 154~167쪽.

21) 이강오, 앞의 책, 1992, 203쪽, 979~980쪽.

22) 양은용, 앞의 책, 2007, 154~167쪽.

1955년 8월에 정인표는 제자 정공일(鄭公一)을 불러서 "내 일은 천지사업이니 잘 밝혀나가라"고 당부하고 타계하니, 그의 나이 세수 58세였다. 정인표가 타계하자 정공일 · 한동환 · 정휴규 · 전연봉 · 이원장 · 이종도 등으로 교통이 이어졌다. 정공일 생존 당시 김흥수(金興洙)가 '미륵불교'라는 이름으로 분파하기도 하였으나 뒤에 두 파는 다시 합쳐져 '미륵불교'로 당국에 등록하기도 하였다.[23]

'미륵불은 대도의 근원인 선기(仙氣)로서 천대탑(天階塔)에 내려와 인간의 대도를 창설한 강증산이며 정인표는 미륵불의 자식으로서 후천을 담당한다'라는 게 교리의 핵심이다. 즉, 미륵불로 형상화한 강증산과 아미타불로 형상화한 정인표를 신앙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강증산의 도맥이 1915년 김형렬에게, 다시 정인표에게 계승 실행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24] 현재 신앙의 대상은 미륵불(彌勒佛; 강증산)이며, 석가상(釋迦像)과 공자상(孔子像)을 협시불로 받든다. 더불어 삼계도솔신장(三界兜率神將) · 용화불토왕대신(龍華佛土王大神) · 미륵불상(阿彌佛像; 정인표) 등을 봉안하며, 그밖에 휴정(休靜) · 유정(惟政) · 이순신(李舜臣) · 송구봉(宋龜峰) · 김일부(金一夫) · 최제우(崔濟愚) · 전명숙(全明淑) 등 많은 역사적 인물을 숭배한다. 수행 목표는 대인대의수정(大人大義守正) · 오상선행(五常善行) · 지은보은(知恩報恩)이며, 주요 의례는 춘분 · 하지 · 추분 · 동지에 지내는 사대절후(四大節候) 치성과 칠성치성 · 명부치성 등이 있다.[25]

23) 홍범초, 앞의 책, 1988, 618~621쪽. 앞의 책에 의하면, 미륵불교는 1997년 한때 전국 16개 지부에 1만 8,750명의 교도를 확보하였다.
24) 양은용, 앞의 책, 2007, 154~167쪽.
25) 홍범초, 앞의 책, 1988, 592~618쪽.

3. '일망무지론'과 '신인동맹'

정인표는 미륵불 강증산의 후신이라 자처하면서도 스스로 인불(人佛)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세상의 신명들을 불러내 지상의 모순된 구질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공사를 진행했으니, 곧 신도공사다. 정인표는 신도공사를 통해 지상 선경사회 건설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강점 상태에서 지상선계는 요원하다고 판단한 그는 일본의 멸망을 예언하고 기원하는 비밀스런 집회를 확대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를 신인동맹 사건이라고 한다. 본란에서는 미륵불교 교단 측 자료를 참고하여 신인동맹 사건을 재구성해보겠다.

1) '일망무지'의 예언과 멸왜기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인표는 1938년 7월에 지금의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이진호(李鎭浩)의 집에서 따르던 이들과 함께 신도공사(神道公事)라는 비밀 집회를 가졌다.[26] 이때 정인표는 일본의 명치신명(明治神明)을 불러내서 조선을 위해 일을 하도록 타이르고 탁주 한 사발을 주어 보냈다. 명치신명을 타이를 때 정인표의 제자 정공일이 명치신명을 만사무석한 놈이라고 크게 꾸짖었다. 당시를 기록한 교단 자료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때 (정인표가 명치신명을 불렀을 때) 정공일이 명치신명을 향해 "만사무석(萬死無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죄가 무겁다)한 놈이 무슨 면목으로 우리 조선에 오기를 원하느냐"면서 크게 꾸짖었다. 그러자 명치신명이 말하기를 "내가 미륵세존의 명을 받아 조선의 일로 불려왔는데 조선 사람은 이러한 깊은 이면을 모르고 증오와 계시(戒視)가 심하여 나는 며칠 터이니 술이나 한잔 주시오."라고 하였다고 한다.[27]

26) 지금까지의 관련 글에는 정인표가 김제군 백산면에서 신도공사를 보았다고 썼으나, 태인면(지금의 신태인읍) 백산리를 김제 백산으로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한다.
27) 雪一心 編, 『愛國의 巨佛』, 미륵불교총본부, 1975, 5~6쪽.

정인표와 정공일은 일본의 명치천황의 영(靈)을 불러서는 크게 꾸짖고는 탁주 한 사발을 주어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에 정인표는 일본에 '死'자를 조선에 '生'자를 소화(昭和)에게 '落'자를 각각 붙이면서, '일방무지(日亡無地)'라는 예언을 하였다. 즉 일본은 죽고 조선은 살고 소화는 떨어지니 곧 밝은 새 세상이 되리라, 는 예언이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천명(天命)을 순종하고 성경신(誠敬信)을 다하여 선불유(仙佛儒)를 분명정행(分明正行)하여야 한다. 천지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 화를 준다. 일본의 '死'자와 소화의 '落' 자를 좋아하지 말고 선심선덕(善心善德)을 실행하라. 천지는 선한 자에게 후하고 악한 자에게 박하니 성심성의껏 기도하자"라면서 집회를 확산시켜 나갔다.[28]

정인표는 1940년 5월에 역시 이진호의 집에서 따르던 50여 명에게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각기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충실하며 안식도수를 잘 지키라. 나도 앞으로는 몇 년 간 회합에 안 나가고 누구와의 대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29]

1940년 전후는 일제의 총동원 체제로, 드러내놓고 조직 활동이나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삼엄한 시기에 정인표는 일망무지(日亡無地)라는 기치를 내걸고서 비밀리에 멸왜기도(滅倭祈禱) 행사를 전개해나갔던 것이다. 정인표는 멸왜기도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1939년에 '신인동맹(神人同盟)'이라는 비밀결사체를 만들었다. 신인동맹은 신도공사를 통해서 일제의 멸망을 예언하고 기도하는 한편 조를 편성하여 경찰서 습격을 계획하였다.[30]

1940년 12월에 김제 금산면 용화동의 김병환(金炳煥)은 신인동맹의 멸왜기도 행사를 밀고하였다. 일경은 정인표·이진호·정공일 등 42명을 검거하여, 황실불경죄·육해군형법·치안유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하였다.[31]

28) 雪一心 編, 위의 책, 6쪽; 홍범초, 앞의 책, 1988, 619쪽.
29) 雪一心 編, 위의 책, 5~6쪽; 홍범초, 위의 책, 619쪽.
30) 설일심(雪一心) 편, 앞의 책, 1975, 2~6쪽; 홍범초, 위의 책, 619~621쪽. 앞의 책에 나와 있는 신인동맹 관련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공적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31)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185~189쪽. 김병환은 일경의 앞잡이로 정인표를 따르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매번 교단 모임에 참석하여 교단 실정을 정탐하였다고 한다. 김병환의 소위를 아는 정인표는 모임이 끝난 후에 으레 "병환이는 굿을 잘 보았느냐"고 묻는 등 김병환을 남다르게 대했다고 한다(홍범초의 『汎甑山敎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619쪽).
32) 홍범초, 앞의 책, 1988, 619쪽. 앞의 책에 의하면, 당시 일경에게 체포된 이들은 태인인 8명, 김제인 4명, 고부인 1명, 부안인 6명, 고창인 1명, 장수인 1명, 영광인 1명, 제주인 6명 등이다.
33) 홍범초, 위의 책, 618~621쪽. 앞의 책에 의하면, 문초에 앞서서 정인표는 제자들에게 "歲月如流劒戟中 往劫在於十年間"이라는 의미 있는 시를 읊기도 하였다.

2) 정인표의 구국 사상과 '왜화조난'

김병환은 김제경찰서 형사 양재홍(楊載弘)에게 신도공사 때 정공일이 명치신명에게 만사무석한 놈이라고 꾸짖었던 일, 일본에 '死' 자 소화에 '落' 자를 붙인 일 등을 밀고하였다. 이에 정인표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던 42명의 제자들이 일경에 체포되어 큰 수난을 겪었으니, 이를 교단에서는 '왜화조난(倭禍遭難)' 곧 일본에게 큰 화를 입어 재난을 당한 것이라 한다. 체포된 이들은 정읍·김제·부안·군산 등의 각 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들 모두는 1941년 7월에 전북 경찰부로 이감되어 심한 문초를 당했다.[32]

문초 당하기에 앞서 정인표는 "취조를 당할 때 조금도 변명하지 말고 사실을 숨기지도 말라. 우리 일은 천지신명께 맹서하고 나라의 광복과 우리 교의 발전을 기원해오다가가 불행히 이 화액을 당하였으니, 만일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고 숨기면 천지신명들에게 위약(違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인표를 비롯하여 경찰서에 수감된 이들은 수 개월간의 문초 끝에 전주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33]

당시 일본인 검사 정상(井上)이 정인표에게 일본에 '死' 자를 붙인 이유를 묻자 정인표는 "성인의 말씀에 죄 없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천하를 얻어서는 안 된다, 하였거늘 일본은 자래로 살인기(殺人機)를 만들어 무고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잔약한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사해를 어지럽히니, 천지의 귀신과 사람이 모두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정상(井上)이 다시 조선에 '生' 자를 붙인 이유를 묻자 "조선은 자래로 도덕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하여 이웃나라를 무단히 침략한 일이 없고, 침략군을 막는

싸움만 했을 뿐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은 거북선을 만들어 방어전만 하면서 민생의 안락을 생각하였다. 그런데 너희 나라 임금 소화는 제나라 백성을 사지에 몰아넣고 다른 나라 사람을 학살하니 포학무도함이 극에 달하여 천지와 해외내의 인류가 모두 미워하므로 황운(皇運)을 떼어 천하를 태평케 하려고 '落' 자를 붙인 것이다."라고 답하였다.[34]

정상(井上)은 정인표가 한 말을 듣고는 "그러나 죄는 큰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지었으나 변명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참작하겠다."고 하였다. 정인표를 비롯한 42명은 구속 수감된 지 4년째가 되는 1943년 9월에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고문으로 옥사한 이도 있고 기소 유예돼 풀려난 이도 있었다.[35]

정인표는 1943년 10월 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서 판사가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하자 정인표는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니 형벌은 내가 받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 달라"고 말하였다. 당시에 "우리가 처음부터 구금되었을 때 기피할 것은 기피하고 변명할 것은 변명하였으면 무죄로 풀려날 사람도 있었고 형별도 가벼워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너무 사실대로 말하여 형이 중하게 언도되었다."라며 제자 서보인(徐輔仁)이 불평하자 정인표는 "천인(天人)이 동맹해서 한 일을 몸이 괴롭다 해서 피한다면 하늘의 미움을 받으리니, 그와 같이 심약해서 무슨 일을 하리오."라고 꾸짖었다. 이에 서보인이 감복하였다.[36]

정공일 · 이진호 · 권중기 · 곽지홍 · 여성백 등과 함께 수감된 정인표는 5인의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이러한 황량한 시기에 사회로 나간들 무슨 쾌심사(快心事)가 있겠는가. 우리도 해원할 날이 반드시 온다. 현하 대세를 누가 능히 알겠는가."하면서 "천하분분일입유(天下紛紛日入酉)요 칠월칠석삼오야(七月七夕三五夜)라.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나 알아두고 을유년(1945년) 8월에 태인에서 상봉하여 태평주나 마셔보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5인의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으나, 불과 두 해가 채 되지 않아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이 되어 석방된 정인표는 그의 부인과 남매를 만나기가 무섭게 순교한 제자들의 가족을 찾아서 동분서주하였다고 한다.[37]

34) 홍범초, 위의 책, 618~621쪽.
35) 홍범초, 위의 책, 618~621쪽.
36) 홍범초, 위의 책, 618~621쪽.

3) 신인동맹과 보천교 운동, 그리고 주요 인물의 성향

'유사종교 금지령'이 내려진 1930년대 후반에도 보천교의 잔여 세력은 비밀리에 지상 선경사회 건설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예컨대, 보천교 잔여 세력인 인도교(人道敎)의 채경대 등 33명을 종교 단체를 표방하면서 이면으로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혐의로,[38] 역시 보천교 일파인 선도교 관계자 7명을 비밀결사체를 만들었다는 혐의 등으로 검거하는 등,[39] 일경은 1937년에서 1938년까지 보천교를 비롯한 신종교 47개 교단 14,675명을 검거하였다.[40]

일망무지의 예언과 멸왜기도는 강증산이 강조한 지상 선경사회 건설을 위한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심선덕(善心善德)을 실행하면서 엄숙한 기도와 주문 수련을 통해서 신인(神人), 즉 신선이 될 수 있으며, 신선으로 가득한 세상이야말로 지상선계라는 믿음을 실천에 옮긴 일종의 '신선되기 프로젝트'이지만,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의 지상선계는 요원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패망이 전제되어야 지상 선경사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신인동맹이라는 비밀결사체를 만들어, 일본의 멸망을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집회인 신도공사를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보천교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재판 기록에도 '신인동맹은 보천교도들이 주도

37) 홍범초, 위의 책, 618~621쪽.
38) 『동아일보』, 1937. 9. 5. 앞의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경찰서는 인도교의 채경대 등 33인을 검거하였다. 인도교의 채경대는 보천교 간부를 지냈다가 탈교한 인물이다.
39) 『동아일보』, 1937. 8. 20; 『조선일보』(석간), 1937. 8. 31.
40) 『동아일보』, 1938. 1. 15.

하였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추후에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정인표)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신인동맹은 보천교도들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 단체로, 일제 패망을 기원하는 한편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를 결의하고 대원 50여 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경찰서 습격 등을 계획하였다 …

위 기록 외 재판 관련 여타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자신들은 보천교도다'라고 대답하였다. 1936년 차월곡이 타계하자 일제는 보천교의 조직을 해산하고 건축물들을 강제로 해체하였다. 이때 교도 다수가 신인동맹 쪽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 전후해서 보천교의 잔여 세력에 의한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기도하다가 일경에 발각된 다수의 사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940년 전후의 전북 부안의 원군교(元君敎) 사건, 제주의 무극대도(無極大道) 사건, 강원도 평강의 선도교(仙道敎) 사건 등은 보천교 잔여 세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기도했다는 점에서 신인동맹 사건과 다르지 않다.[41] 다음은 '조선총독부고등법원 검사국사상부(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에서 보고한 「조선중대사상사건경과표(朝鮮重大思想事件經過表)」의 일부 내용이다.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원보천교도(元普天敎徒)들이 소화 12년(1937년) 4월 이후에 전북 정읍군의 중심에서 신인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전라북도에 … 시국에 관한 황당한 언설을 늘어놓고 … 동지를 모아서 하부 조직을 만들어 … 자금 조성에 노력하는 등 목적 수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던 42명을 …[42]

41) 안후상, 「선도계열의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종교연구』 제6집, 한국신종교학회, 2002.
42) 「朝鮮重大思想事件經過表(九月末日現在三十一件計上)」, 『思想彙報』(續刊),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43. 1. 1.

참고로 위의 「조선중대사상사건경과표(朝鮮重大思想事件經過表)」에 나타난 조선의 중대 사상 사건 총 31건 가운데 보천교와 관련이 있는 사건은 황극교(黃極敎) 사건, 신인동맹(神人同盟) 사건, 유사종교 무극대도(無極大道) 사건, 유사종교 삼선교(三山敎) 사건, 유사종교 천자교(天子敎) 사건, 유사종교 선교(仙敎) 사건 등 모두 6건이다. 6건 가운데 전북 부안의 천자교 사건을 제외한 5건의 사건이 정읍과 관련이 있다.[43] 당시의 일제는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보천교의 잔여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신인동맹 사건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7년에 돌연 정인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44] 정인표와 함께 실형을 선고 받고 수형 생활했던 정동원(鄭東源)·양인문(梁仁文)·정창묵(鄭昌默)·정공일(鄭公一)·장득원(張得遠)·여성백(余性白)·서보인(徐輔仁)·박재춘(朴在春)·이진호(李鎭浩)·김재영(金在永) 등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신인동맹 사건으로 옥사한 자는 김영수(金永壽; 1986년 건국훈장 애족장)와 여성백(余性白; 1997년 건국훈장 애족장) 등이다. 이들은 기소되기 이전에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였다. 관련 사건으로 수형 생활한 주요 인물의 공적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5]

정인표(鄭寅杓) : 전북 완주사람으로 199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공적 내용으로 "정인표는 1938년 4월부터 정읍을 활동 무대로 조직된 비밀결사 신인동맹에 가담하여 종교적 결합을 바탕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을 쏟았다. 신인동맹은 보천교도들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단체로, 일제 패망을 기원하는 한편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를 결의하고 대원 50여명으로 조(組)를 편성하여 경찰서 습격 등을 계획하였다. 평소 항일

43) 「朝鮮重大思想事件經過表(九月末日現在三十一件計上)」, 『思想彙報』(續刊),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43. 1. 1.
4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4권, 2000, 728~729쪽; 이기화 편저, 『고창충의사』, 고창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1, 279~280쪽.
45)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참고.

의식이 투철했던 정인표는 신인동맹 설립 초기부터 활동하며 동지 규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런데 1940년 12월 경 비밀결사 신인동맹이 일경에 발각되면서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주도자도 검거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43년 10월 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8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이다.

정휴규(鄭休圭; 鄭休哲) : 전북 고창사람으로 199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공적 내용으로는 "정휴규는 1938년 4월부터 정읍을 활동무대로 조직된 비밀결사 신인동맹에 가담하여, 종교적 결합을 바탕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을 쏟았다. 신인동맹은 보천교도들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체로 일제 패망을 기원하는 한편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를 결의하고 대원 50여 명으로 組를 편성하여 경찰서 습격 등을 계획하였다.…"이다.

오귀룡(吳貴龍) : 경북 문경 출신으로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공적 내용으로는 "오귀룡은 보천교도로서 1938년 4월경부터 전북 정읍에서 보천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신인동맹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 그가 조직한 신인동맹은 보천교 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비밀결사체였다. 그는 신인동맹을 중심으로 동지 획득과 하부조직 결성 및 자금 조성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이다.

위의 인물들의 주된 공적 내용은 '보천교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종교적 결합을 바탕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일본의 패망을 기원하고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를 결의한 50여 명의 대원이 경찰서 습격을 계획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관련 재판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나오며 : '신인동맹' 사건의 의의와 성격

신인동맹은 증산 신앙을 하던 정인표와 보천교도들이 반일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조직이다. 신인동맹에 가담했던 이들이 일제의 패망과 국권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든다. 더욱이 신인동맹 조직원 50여 명은 조를 편성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려고도 하였다는 재판 기록을 보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분명 반일 독립운동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보천교가 그랬듯이 신인동맹 역시 후천개벽 지상 선경사회 건설을 위해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기도하였다. 보천교의 차월곡이 타계하자 일제는 정읍 대흥리의 보천교 본소를 일거에 해체하고 보천교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보천교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비밀리에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거나 기원하는 집회를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다.

1940년 전후의 시기에 신인동맹만이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다. 보천교의 잔여 세력인 부안의 원군교(元君敎)와 제주의 무극대도(無極大道), 그리고 강원도 평강의 선도교(仙道敎) 등도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기도하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상 선경사회 건설을 위해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거나 기도하다가 일경에게 발각, 체포되었던 것이다.

1936년에 일제는 보천교를 해체하면서 '유사종교 해체령'을 내렸다. 일제의 전시체제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민족의 독립 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그즈음에 보천교의 잔여 세력들은 비밀리에 조직을 재건하고 비밀리에 집회를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름 하여 '후천개벽 지상 선경사회 건설운동'(이하 지상선계 건설운동)이다. 지상선계 건설운동은 선심선덕(善心善德)을 실천하고 경건한 기도와 주문을 통해서 신인(神人;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의 강점 상태에 지상선계 건설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신인동맹 사건은 지상선계 건설에 걸림돌인 일본제국의 패망을 예언하고 기원하면서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려 했던 반일 민족·민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록] "신인동맹 사건 관련 국가 유공자 목록"

출처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2014.1.15.

순	유공자명 (이명)	훈격 (심사년)	생몰 기간 (양력)	본적	운동당 시주소	활동 지역	소속 및 지위	수형 (복역) 연수	공적 개요
1	鄭寅杓	애족장 (1997)	1898.12 ~1957.5	전라북도 완주	全北 井邑 泰仁 泰成 642	全北 井邑	彌勒佛教 代表	수형은 징역8년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8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2	鄭公一	애족장 (1997)	1890.10 ~1960.12	전라북도 고창 大山 德川 191	좌동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5년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5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3	李鎭浩	애족장 (2008)	1895.2 ~1970.9	전라북도 정읍 泰仁 栢山 28	좌동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5년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普天敎徒들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神人同盟을 조직하고 동지 획득과 조직 결성 및 자금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懲役 5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4	鄭東源 (鄭東勳)	애족장 (2006)	1881.3 ~1943.6	전라북도 고창 星松 上金 81	좌동	全北 井邑	神人同盟 禮事部長	미정	1918년 太乙敎徒로서 독립계획을 은유 유포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된 바 있으며, 1937년 3월 全北 井邑郡에서 徐輔仁 등과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神人同盟을 조직하고 禮事部長에 선임되어 조직 구성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病保釋 死亡한 사실이 확인됨.
5	徐輔仁 (徐政)	애족장 (2004)	1895.5 ~1960.3	경상북도 달성 嘉昌 三山	全北 井邑 新泰仁 新泰仁 583	全北 井邑			1930년 경 車京錫이 교주로 있던 普天敎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40년 2월 神人同盟이 朝鮮을 日帝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단체임을 알고 이에 가입한 후 慶尙北道 文官에 임명되었으며 神人同盟의 간부에게 나누어줄 인장을 조각하여 분배하고, 그 외 동지 획득, 조직 확장 등을 위해 활동하다가 逮捕되어 懲役 2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6	梁仁文 (梁君五)	애족장 (2002)	1887.1 ~1944.9	전라북도 진안 全北 鎭安 鎭安 郡下 105	좌동	全北 鎭安		수형은 징역2년(복역2년3월)	1939년 8월부터 鄭寅杓가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한 新人同盟의 존재를 알고 수차례 회합에 참석한 후 1940년 6월 "조선의 독립 후 자신을 平安道 武官"으로 임명하겠다는 말을 듣고 본 同盟에 가입하여 동지 획득, 자금모집, 조직 확장 등을 위하여 활동하다 逮捕되어 懲役 2年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疾病으로 가출옥한 직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建國勳章 愛族章에 해당 하는 분으로 판단됨.
7	鄭昌默 (鄭振奉)	애족장 (1997)	1884.5 ~1961.1	전라북도 고창 大山 新坪	좌동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 2년6월 (복역2년 9월)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2年6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8	余性白	애족장 (1997)	1899.4 ~1944.5	전라북도 정읍 泰仁 泰成 225	좌동	全北 井邑		옥사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獄死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9	張得遠	애족장 (1997)	1897.1 ~1973.11	경상북도 청도	全北 井邑 泰仁 泰成 441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2년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2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10	鄭休圭 (鄭休哲)	애족장 (1997)	1904.4 ~1974.9	전라북도 고창 大山 春山 602	좌동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3년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3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11	金在永 (金在德)	애족장 (1997)	1908.8 ~1969.12	전라북도 고창 大山 支石 72	좌동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1년6월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 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1年 6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12	朴在春	애족장 (1997)	1886.10 ~1967.3	전라북도 진안 富貴 井谷 771	좌동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3년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朝鮮獨立을 目的으로 秘密結社 神人同盟을 組織하고 同志獲得과 下部組織 結成 및 資金 造成 等 活動하다 被逮되어 懲役 3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13	吳貴龍	애족장 (2005)	1885.10 ~1970.10	경상북도 문경 山陽 松竹 121	全北 井邑 新泰仁 九石	全北 井邑		수형은 징역2년6월	1938년 4월경부터 全北 井邑郡에서 普天敎徒들을 중심으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神人同盟을 조직하고 동지 획득과 하부조직 결성 및 자금조성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懲役 2年 6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참고문헌

1. 단행본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4권, 2000.

김홍철 외,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7.

박병재, 『미륵불교관』, 미륵불교총본부, 1974.

설일심 편, 『애국의 거불(巨佛)』, 미륵불교총본부, 1975.

안후상, 「19세기 노령 이북의 좌도와 동학·보천교」, 『19세기 사상의 거처』, 도서출판 기역, 2013.

_____, 「선도계열의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종교연구』 제6집, 한국신종교학회, 2002.

_____,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 26, 한국신종교학회, 2012.

양은용, 「미륵불교의 성립과 『교리정전(敎理正典)』」, 『한국종교』 31,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7.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도서출판 대흥기획, 1992.

이기화 편저, 『고창충의사』, 고창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1.

이정립, 『증산교사』, 증산교본부, 1977.

이현택, 「미륵불교」, 『한국종교』제1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1.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저, 『한국종교연감』, 고려한림원, 1997.

홍범초, 『범증산교사』, 도서출판 한누리, 1988.

2. 기타 자료

「太乙敎徒檢擧に關する件」(大正八年十二月二十六日 高警第三六六一〇號)(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第Ⅰ卷分册 民族主義運動篇』)

『동아일보』, 『조선일보』

『思想彙報』(續刊),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43.1.1.